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2월 18일)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조계종 조직 개편 첫 걸음 종헌 개정안 지지 속 가결

조계종 중앙종회 제230회 임시회 찬성 72표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의 첫걸음인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교육원과 포교원은 내년 4월 1일부터 종헌에서 삭제된다. 총무원은 앞으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3월 19일 개원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가장 핵심 사안으로 평가된 종헌개정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투표에는 재적의원 79명 가운데 76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72표, 반대 4표.

총무원장 · 종회의원 각각 발의
발 빠르게 여러 의견 수렴해
축조심의 과정 이의제기 없어
진우 스님 "정말 열심히 노력"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다룬
종헌개정안은 이월되다 철회
총림 운영현황 살필 특위 구성

종헌개정안은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발의안으로 제출됐다.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원,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 등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모았지만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총무원과 중앙종회 차원에서 각각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심우 스님이 대표 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총 74명의 의원이 서명하면서 종헌 개정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직 개편 종헌개정안은 앞서 교구본사주지회의, 원로회의 등을 거쳐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한 만큼 축조심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부칙으로 종헌개정안 시행일을 2025년 4월 1일로 정한 것에 화평 스님이 "종법이 너무 방대해 1년 안에 조직 개편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견해를 밝혔지만 미래특위 위원인 만당 스님이 "매주라도 모여 회의하면서 빠르게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종헌개정안이 통과되고 찬성 72표라는 결과가 나오자 회의장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종헌개정안이 이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전례가 드물기 때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헌개정안 가결 이후 중앙종회에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반대 4표는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삼겠다. 앞으로는 교육원과 포교원뿐만 아니라 종단부서 전체를 놓고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94년 개혁 때 만든 조직으로 종단이 운영돼왔지만 불교는 더욱 거듭나야 한다. 조직 개편에도 의원스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28회 임시회부터 이월돼온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대표발의자 만당 스님이 철회했다. 스님은 "아직까진 절대 다수의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겸직 금지 완화' 종헌개정안 연동법인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철회됐다. 또한 교구본사주지의 중임을 2회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철회됐다.

이어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산중총회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자 중 법계·승납·연령이 높은 순으로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첫날에 이어 20일 속개한 회의에서는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이 통과됐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동훈·오철·도서 스님(직할) △종일·성법 스님(용주사) △성대 스님(동화사) △돈증 스님(은해사) △도현 스님(해인사) △덕운 스님(쌍계사) △수불 스님(범어사) △원행 스님(금산사) △원진·일수·정연 스님(백양사) △종국·명섭·종열·진만·종고·종걸 스님(화엄사) △화범 스님(봉선사)이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일수·혜윤·본각·혜원·상덕 스님(직할) △정엽 스님(월정사) △상덕 스님(직지사) △혜강 스님(해인사) △경희 스님(통도사) △능인 스님(봉선사)이다.

중앙종회는 총림실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안 스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은 출가자 감소와 승가 고령화로 교육·수행기관 운영이 어려운 총림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동국대 단과대 첫 불교동아리가 탄생했다. 사회과학대 재학생 84명을 주축으로 창립한 '템플애플'은 3월 20일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재미있는 불교로 학생사회에서 부처님 법 전할 것을 서원했다.

동국대 사과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 창립

3월 20일 창립법회…첫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사회과학대 재학생 84명 주축으로
'애플' 사회과학 줄임 '사과'서 따와
"불교와 함께 놀며 가르침 체득" 강조
14개 단과대 동아리 창립 목표 진력

"우리 사과대 학우들은 불교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며 우리 학생사회에 부처님 법을 전하길 희망합니다. 부처님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템플애플의 모든 존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돼 살아갈 수 있길 서원합니다."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을 창립했다. 동국대 단과대 단위에서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과학부 학부생 73명과 대학원생 11명 등 총 84명이 주축이 된 '템플애플'의 애플(apple)은 사회과학의 줄임말인 '사과'에서 따온 것이다. 시작부터 통통튀는 아이디어로 불교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템플애플(회장 문정민)은 3월 20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대학생불자로서 팔정도 교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서로 간의 화합과 믿음을 통해 전법에 전력할 것을 서원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118년 동국 역사상 단과대 첫 불교동아리인 '템플애플'에 운영 활성화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스님은 "애플템플의 애플은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아닐까 한다"면서 "오늘은 동국대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큰 힘이 돼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면서 "불교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과 취업 활동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부처님 학교에 입학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청년불자답게 재미있고, 활발발하게 움직이며 행동해 한국불교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도 금일봉을 전달하며 각자 본래 간직한 불성을 일깨워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학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응원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템플애플을 이끌어갈 지도법사와 교수 위촉식도 진행됐다. 지도법사에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정각원 교법사 자헌 스님이, 지도교수에는 김용현 북한학전공 교수와 민세진 경제학과 교수, 현정환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템플애플은 앞으로 법문·템플스테이·사찰음식 체험·부처님오신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불교문화 활동을 통해 불교문화의 정수를 체득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부처님 가르침 실천을 통해 용기와 희망, 치유와 행복을 경험하고 창의성과 리더십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정민 템플애플 회장(정치외교학과)은 템플애플이 추구하는 것은 '불교와 함께 놀자'라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불교는 따분하다는 일반적 통념을 넘어 불교문화를 학우들과 함께 향유하며 불교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라며 "불교가 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책 밖에서 학생들과 함께 놀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템플애플 부회장(북한학과)도 "사회과학대 학우들과 함께 불교의 문화를 즐기면서 학생사회에 부처님 법을 전하길 희망한다"면서 "부처님 진리를 따르면서 템플애플의 모든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법회 후 돈관 스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손목에 단주를 채워주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창립법회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법선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동국대는 앞으로 서울 캠퍼스 14개 단과대에 개별 불교동아리 창립을 목표로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